

## 감초주사(SNMC·강력 네오미노화겐)의 효능과 사례 2

지난호에 이어 이이노 시로우 박사(일본 성마리안나 의과대)의 바이러스 간염 문답식 해설집 《B형, C형 간염박사》(김경희 박사 편역, 98년 3월 태웅출판사)에서 감초주사의 효능과 관련된 부분을 옮겨 본다. - 편집인 도움말

### 1. 감초주사의 유효성

C형 간염 환자인데 인터페론 치료를 6개월 간 시도해 봤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후 다른 병원에서 한방 치료를 1년간 계속했으나 GOT·GPT는 그대로 높았습니다(GOT 225, GPT 245). 이번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감초주사를 맞았는데 GOT GPT가 77 IU, 66 IU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인터페론 치료를 받기 전, 1년 간 감초주사를 사용했는데 그 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일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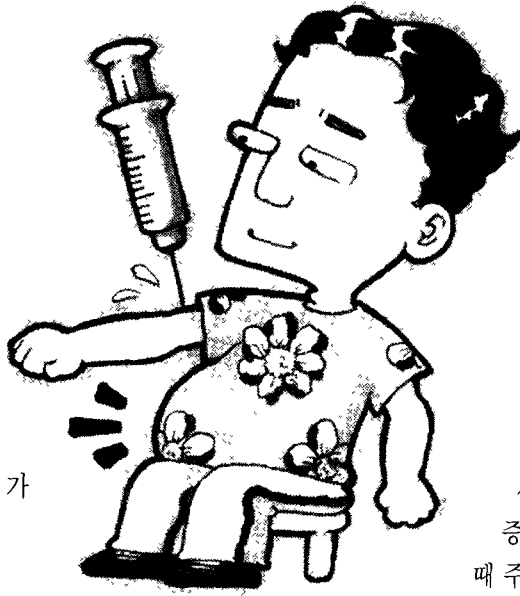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방약에서 감초주사로 변경했더니 GOT·GPT가 내려갔다는 것, 또 하나는 인터페론 치료를 받은 후 감초주사의 효과에 변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방약과 감초주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한 마디로 한방약이라 해도 여러 가지 처방이 있을 수 있기에 어떤 처방을 썼는지는 몰라도 한방약의 영향으로 GOT·GPT의 수치가 10~20퍼센트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방약이라는 것은 사용한 사람 모두에게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감초주사는 1975년 경 비교 시험이 검토되어 대부분의 사람으로부터 확실히 GOT·GPT의 수치를 내리는 작용이 있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환자에게 1일 40ml를 매일 사용하면 GOT·GPT 효과를 볼 수 있고, 잘 듣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상치의 2배 정도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인터페론 치료를 전후해서 감초주사의 효과가 변동된 점입니다. 감초주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GOT·GPT를 정상 범위 또는 그 근방까지 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해서 만족할 정도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런 사람에게는 인터페론 치료를 행한 후 그 후에 다시 감초주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터페론 사용 전보다도 잘 듣게 되고 GOT·GPT 또한 거의 정상 치료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많은 전문가가 경험한 바인데 그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량이 많다든가 바이러스의 형에 따라 인터페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인터페론 치료를 행하면 그 후의 간염 관리가 감초주사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



어 병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감초주사의 간경변에 대한 효과

C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환자입니다 인터페론 사용이 곤란해 전적으로 간 보호제(우루소산 등)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안해서 담당의에서는 비밀로 하고 다른 병원에서 주 2회 감초주사 40ml씩을 맞고 있습니다. 담당의는 감초주사에는 항바이러스 작용이 없고 사용 중지하면 검사치도 즉시 주사 전으로 되돌아간다고 투약해 주지 않았습니다. 간 보호약에만 의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감초주사를 사용하는 편이 좋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황달이나 복수는 없고 GOT·GPT는 50-80 IU 정도입니다.

여기서 말한 간 보호제만으로는 간염을 충분히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초주사 투여로 GOT·GPT가 비교적 내려간 것같이 보이나, 주 2회 투여라서 주사 후 측정했을 때는 내려가도 며칠 있다 다시 측정해 보면 높아져 그것이 50~80 IU의 변동되는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현재 감초주사를 주 2회 40ml씩 투여한다고 했는데 주 5~6회까지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가시킴으로 GOT·GPT는 40~50 IU까지 내려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 약의 사용법에 있어 1일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 중 어느 편이 좋으나 하면 투여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만 횟수를 증가

시켜도 효과가 불충분할 때는 양을 증가시킵니다. 한편 이 약은 그때그때 주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업무 관계, 기타 등의 사정으로 통원할 수 없는

환자라면 이런 경우는 하는 수 없이 양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횟수를 증가시키고 양을 적게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감초주사라는 약은 담당의가 말한 바와 같이 항바이러스 작용도 없고 중지하면 검사치가 본래의 수치로 되돌아갑니다. 이 약은 대증요법 약이기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증요법 약이라 별 효과가 없는가 하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초주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간염을 진정시키는 데 있고 그 결과로 GOT·GPT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초주사로 간염을 진정시켜 GOT·GPT를 정상치나 거기 가깝게 유지시켜 놓으면 병의 진행이 지연되어 간경변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간암의 발생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즉, 감초주사는 많은 성인병 약과 동일합니다. 고혈압 약은 고혈압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용하는 중에는 혈압을 내리지만 중지하면 상승됩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동맥경화를 진행시키든지 심장 발작과 뇌졸중 등을 발생시키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약을 써서 혈압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대증요법 약은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지는 못할지라도 병의 진행을 지연시킨다든지, 발작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는 여러 효능이 있기에 그 사용 목적을 잘 알고 사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계속>